



**호남예술제  
황홀한 춤사위**

25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학생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8회 호남예술제' 한국창작무용 독무 경연에서 전남예고 3학년 정선아양이 '달빛따라가기...'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양은 이날 창작무용 독무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정양의 독무를 다중 촬영했다. <입상자 명단 1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독점구도 깨지나... 지역 정치권 빅뱅 신호탄

**뉴스 초점** 안철수 귀환...슬렁이는 호남

내달 광주 방문...신당 창당 등 행보 촉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승리,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호남 민심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새 정치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지난해 대선에서 안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단체들과 정치인들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 의원이 '5·18 광주'와 연관

을 지으며 새 정치의 시동을 걸고 있어 호남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대선 결과과정에서 불었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의 바람이 어느 지역보다 거셌고, 대선 패배와 함께 당내 혁신에 실패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안 의원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 의원 또한 광주·전남의 지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호남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향후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우선 안 의원의 '5월 광주행'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안 의원 측이 5월 중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 일을 전후해 향후 정치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도 광주 방문을 통해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거는 등 항상 광주에서 '주요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이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어떤 정치 이슈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광주전남시민포럼과 진심포럼을 비롯한 안 의원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안 의원과 함께할 세력들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외연 확대 가능성이 도 점쳐지고 있고, 지역민들의 신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안 의원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정치권의 역학관계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이 선불리 '신당 창당'의 불을 붙이지 않고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과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민포럼 관계자는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야권의 정치 지형은 물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정치적 지형 변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특히 민주당 일당독점에 열증을 느낀 지역민들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안 후보의 당선은 호남 정치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완화 답습”

**MB정부서 무산됐던 수도권정비법 개정 시도 비수도권 강력 반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강행했다가 좌초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답습할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非)수도권 시·도지무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정치적 지형 변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특히 민주당 일당독점에 열증을 느낀 지역민들이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안 후보의 당선은 호남 정치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수도권규제완화 강행 중단 촉구'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 온 지역민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어느 것 하나 구체화한 것이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수도권 위주의 편중개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국정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26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MB정부에서 추진하다 비판만 받았던 정책을 현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출범초부터 국정혼란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 대학이전이 허용되면 수도권 내 대학 집중화가 이뤄지면서 가뜰이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 姜-李, 28일 단일화...대의원 배심원대회 열어 확정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광주 출신의 범주류 측 강기정·이응섭(기호순) 후보가 대의원 배심원제를 통해 28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 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비주류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 단일후보 간 일대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이번 전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이 후보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의원 배심원대회를 열어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이 표본 추출한 300~500명의 대의원이 배심원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두 후보의 정견발

표와 토론회를 거쳐 배심원 투표로 현장에서 단일 후보를 가리는 방식이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새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결집을 나서면서 김한길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당내에 범주류에 대한 대선패배 책임이론이 많고 단일화 명분이 약해 파괴력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케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5월호

4월 25일 발매

백만송이 이야기 꽃, 피어라 5-18

특별 기획

**웰컴투 무등산**

무등산으로 걸어 들어간 시, 그림, 노래를 만나다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으로 읽는 무등산  
무등산 닮은 거장 의재를 생각한다

**커버스토리**

백만송이 이야기 꽃, 피어라 5-18

"광주판 레미제라블이 보고 싶다" 킬러콘텐츠의 탄생을 기다린다

뜨거운 효용 속에 통탄하고 있는 연극 '푸르른 날에' 연출가 고선웅이 말하는 5-18 연극의 새 가능성

**스페셜 인터뷰** 한국뮤지컬계 거물 박명성에게 듣는 뮤지컬 집념과 그의 사람들

마주인은 책과 삶 **통섭학자 최재천** 인생의 책과 지적 황당기

이달의 아티스트 **설치미술가 정운학** 열과 빛으로 사물의 본질을 묻다

예상이 만난 이사람 **앨범내고 아시아무대로 비상** 꿈꾸는 '리틀싸이' 황민우의 월드스타 도전기

변호사 노영대의 특별한 예향사랑 **창간호부터 209호까지** 소중하게 읽고 간직해온 사연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태백산맥 임태한 별의 땅, 별교에서 외서책을 만나다**

행복한 컬러터 **1만여 점의 시 같은 민예품에 푹 빠진 최리걸러리 이영화** 관장

문화역사기행 **윤선도의 해남 녹우당 /보길도 부용동** "일산은 억압해도 내 예술혼은 가두지 못하리"

美로 美로 **무안** 한국색 짙은 수직 민방 수 있는 <오승우 미술관>과 <연요리>